

「금융리스크 대응 TF」 제2차 회의

모 두 발 언

2022. 6. 23.(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지난달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한 이후,
오늘 또 다시 리스크 점검을 위한
유관기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경제 · 금융시장 현황 〉

그만큼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은 엄중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경기침체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물가·금리인상 기조 속에서
국채금리와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복합적 위기가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리스크 대응 철저 〉

지난번 점검결과, 아직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금감원, 국금센터 등과의 일일점검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매월 정례적으로 TF 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현황 뿐 아니라
가계부채·부동산·기업 등 실물부문까지
촘촘하게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금융회사의 리스크 요인과 대응여력을 재점검하고,
회사채 시장의 동향과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현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의 10대 핵심리스크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부실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도 미국·EU 등 주요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참조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지원 〉

한편, 물가가 급등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8.5조원 규모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변동금리 주담대의 장기·고정금리 전환을 위한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등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중채무자 등 가계취약차주와 한계 중소기업, 채무 부담이 높은 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를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당국 뿐 아니라
금융회사·민간전문가 등 민간 부문과
기재부·한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합니다.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관련기관,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